

■ 교회소식 ■

1. **성서학당** : 오늘 오후집회는 성서학당입니다.
2. **교육부회의** : 교육부회의가 오늘 12:30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3. **속회 개학** : 이번 주부터 속회를 개학합니다. 각 속회는 모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속회 인도자들은 공과를 사무실에서 받아주세요.
4. **겨울수련회** : 아동부 겨울 수련회가 18,19일 평택 경동인재개발원에서 열립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18,19일 팀비전센터에서 열립니다.
5. **교회 생활 안내** :
교회에 오실 때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차를 가지고 오실 때는 청파동마을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늦지 않게 오시고, 앉을 때는 앞자리부터 채워 앉으시기 바랍니다.
회중은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송영 이후에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6. **신앙실천** : 교회에서 식사할 때 먹을 만큼만 받아가고 음식물을 남기지 맙시다.
* 떡 대접 : 박은애 이종혁

다음 주 설교 본문 렘 17:5~11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장원호 권사	권혁순 권사

1부 영접위원	곽관희	헌금위원	권미정
2월 2부 영접위원	김인걸 박범희	김광일 한양미	권미숙 박미영
2부 헌금위원	한완식 백혜숙		

오늘 식당 봉사	박혜경 조항미 김민화 이유리 이완구 김나경 홍성식 윤형석
다음주식당봉사	고숙이 오송경 이준림 한양미 정은선 이진영 유상진 황현성
오늘설거지봉사	청파7속 다음주설거지봉사 2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6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추현영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주현 후 6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홍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X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르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5.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낙심한 자에게 희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 남녘엔 매섭게 부는 겨울바람을 뚫고 매화 꽃망울이 터졌습니다. 우리도 차갑고 어두운 세력에 짓눌리지 않고, 봄기운을 떨치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생명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주십시오.

생명의 주님, 닭과 오리를 끔찍하게 도살처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구제역이 돌기 시작합니다. 노후한 원자력 발전소 운행에 대한 불안한 소식도 들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모든 생명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길이 막막해 보입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마 5:8,9 인도자
▲ 교 독 문	49. 시편 108편 다 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2부목회기도	하현철 장로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401. 주의 곁에 있을 때 다 함께
▲ 성경봉독	요 8:12-20 I. 인도자
	II. 추현영 집사
	봉독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부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신철 김명희 박상호 김애정 박숙미 안길상 이광영 정원석 최수익 이오복	이혜경 김승현 김인석 노희민 박시내 이형숙 이근석 김현영 최옥자 최영선	강요한 김수진 이선화 노희은 박재영 안현숙 신영신 이지호 최은미 최한식	원은이 김애경 김진우 김진우 노희진 이현정 오재형 이왕준 이한림 양순임 최진성 임정자	곽정자 김애경 김미진 김민준 문복순 박창운 임고운 송상경 김명희 조경희 최영은 최홍선	국지연 박성수 김혜라 박다영 허정윤 원우상 이재영 장문규 최현하 홍성식	연수영 김희영 박희현 박미영 배삼순 최현선 이계영 김재정 정문규 최진하 최현리	우순진 김영진 박희현 박미영 배삼순 최현선 이계영 김재정 정문규 최진하 최현리	하현철 김용훈 김훈동 김희박 박미영 배삼순 최현선 이계영 김재정 정문규 최진하 최현리	일길동 최유박 박성서 윤순우 이은태 정완수 조순덕 조순홍 안홍	김영혜 경순희 정순우 이은태 정완수 조순덕 조순홍 안홍	김남명 조항미 조성지 윤영미 이인용 김재광 김재준 김재준 김재준 김재준	부운진 조항미 조성지 윤영미 이인용 김재광 김재준 김재준 김재준	용수진 조항미 조성지 윤영미 이인용 김재광 김재준 김재준 김재준
--	--	--	--	--	--	---	---	--	--	---	--	---	---

감사헌금

김성우 노진래 안성호 이은혜 무명21	박유경 최형경 김희숙 이한림	김승현 문금석 오승아 김명희	김수진 문복순 유청빈 임광호	김영희 박창운 이고임 임선양	김일랑 허정윤 이광재 신현숙	이은옥 방경선 이미홍 조혜윤	김재홍 백성래 이상도 최승민	최희영 서효진 이유일 최영수	김해선 송인선 김미희 최윤희
----------------------------------	--------------------------	--------------------------	--------------------------	--------------------------	--------------------------	--------------------------	--------------------------	--------------------------	--------------------------

생일감사헌금 신영신 정두리

녹색꿈헌금 김진선 김재환 김향자 이고임 임설희 무명3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f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마음으로 읽는 글 ■

냉이국

김병호

가로등은 깜박, 깜박 얇은 잠을 뒤척이고
 담배가게 용길이 할머니도/ 난로가에 앉아 선잠을 데우십니다
 젊은 아버지 퇴근길의 휘파람처럼/ 눈발이 골목을 길게 휘감으며
 어깨 좁은 이웃들의 안부를 묻는 저녁입니다/
 어머니 시집올 때 해오셨다는/ 자개상 위에서 서둘러 맞는 저녁
 아버지가 좋아하셨다는 냉이국을/ 두 쌍의 수저가 어깨 세워 사이 좋게
 달그락거리고, 바닥에 가라앉은 뿌리마저 훑
 훑 들여마시면, 한 그릇으로도 가득 넘치는
 봄, 난 아버지의 봄마저 마십니다/
 멀리 계신 아버지, 마당 한 쪽에
 짝짝눈 눈 쌓이는 소리로 안부를 전하면
 꽃시절 그리운 어머니는
 먼 나라로 길을 나서듯 뜨개질을 하시는데
 조개껍질 안으로 영겁을 지낸 순한 짐승들이 날고
 꽃구름 사이로 볼 붉은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먼 나라에서 어깨 나란히 걷는
 하이칼라의 젊은 아버지와/ 하이힐, 나팔바지의 어머니/
 밤이 깊을수록 아버지의 안부는 선명해지고
 어머니는 미달이에 걸린 달빛으로/ 한 땀 한 땀 봄을 입고
 내일쯤 나는/ 다시, 젊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 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김 린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주시리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말 씬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379.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근원이시며 나아갈 지향점이십니다. 이제 영혼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의 길을 따라나서십시오. 못 생명을 억누르는 어둠의 돌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빛과 진리의 세계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다 함 계:	아멘.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타할 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데 게을렀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빛이신 주님께 뿌리 내릴 때 참 생명으로 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겠습니다. 서로서로 곁을 비추며 힘찬 기운을 불어넣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모순, 역설 그리고 영적인 삶

인생의 모순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제대로 못 살아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또 우리 삶을 둘러싼 환경 속에 내재되어 있다. ... 개인적인 삶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순들은 우리가 일과 정치의 공적 세계에 들어갈 때 몇 배나 배가된다. 이곳은 여러 가치들이 서로를 상쇄시키는 곳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떻게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가? 이곳은 수많은 파당들이 부족한 자원을 놓고 경쟁을 하는 곳이며, 우리의 비전이 집단 생존 법칙인 타협이나 인정사정 봐 주지 않는 자연 법칙에 굴복하는 곳이다. ...

토머스 머튼은 우리가 모순에 반응하는 방식이 영적인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가 모순과 대면하고 모순을 생각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신비에 들어가거나 그 신비를 피하는 전환점이다. 어쨌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사 45:7)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닌가?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둠과 환난을 모두 악마의 탓으로 돌리기를 선호하여 거의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선언이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영적 여행을 시작하지만, 거기에 이르기 한참 전에 그 여정은 우리로 모순을 더 뚜렷하게 느끼게 할 뿐이다. 성령의 진리는 우리가 영위하는 거짓된 삶과 모순된다. 성령의 빛은 우리 내면의 어두운 삶과 모순된다. 성령의 하나됨은 우리의 깨어진 상태와 모순된다.

우리 중 일부는 성령과 자아 간의 긴장이 너무 심하여 영적 탐구를 포기하기도 한다. 어울리지 않는 빛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근원을 외면하고 도리어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또 우리 중 일부는 어둠을 부인하고 계속 빛이 있는 곳에서 걸으려고 노력함으로써 긴장을 해소한다. 어둠의 세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순결하게’ 있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킬 상황을 찾는 것이

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이 상호작용을 하는 곳, 빛과 어둠이 달라붙어 있는 곳, 모순이 아주 많은 위대한 삶의 드라마로부터 물러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길, 이쪽 극단이나 저쪽 극단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을 넘어서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모순을 살아내는 것”이라 부르자. 우리는 긴장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그 긴장이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허용한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고자 하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삶의 큰 선물 중 하나, 즉 모순이 역설로 탈바꿈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양자택일의 양극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진리의 표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삶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커질 것이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모순은 논리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요소들을 포함한 진술이다. 역설은 자기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조사해보면 본질적으로 진리임이 증명될 수 있는 진술이다. 많은 지혜 전통의 통찰들은 전통적 논리의 규범이 모순으로 판단할 법한 것들이다. 그러나 영적 규범에 따르면 이런 통찰들은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10:39)

...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긴장의 해소가 아니라 우리 삶이 걸치고 있는 양극단을 충분히 고통스럽게 인식하며 모순을 살아내는 일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역설 속에 뛰어들게 될 것이며 그 역설의 중심에서 초월성과 새로운 삶을 찾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모순들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갈 때에만 일어날 것이다.

- 파커 파머, 「역설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아바서원) 중에서